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김 미 령

(대구대학교)

[요 약]

탈북자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연구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본 연구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비교적 많은 대상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우울성향에의 영향을 추론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164명이며 분석방법은 t 검증, 변량분석(ANOVA)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중요한 탈북자의 인구학적인 변인과 탈북 이후의 변인인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한국에서의 정규교육 유무가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집단참여는 탈북여성이 탈북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의 재교육은 우울성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직상태는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교회, 사회, 탈북자단체 등의 집단에의 참여는 우울성향을 감소시키고 있고 기능적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도 우울성향을 감소시키지만 도구적 지지는 우울성향을 증가시키므로 탈북자들의 상황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적절성이 요청된다.

주제어: 탈북자, 적응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우울성향

1. 서 론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악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의 경우 1990년까지는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한 중국의 체제변화에 힘입어 숫자가 점점 증가하였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 이 논문은 2003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됨.

이 논문은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탈북자의 숫자는 조금씩 증가하여 1999년부터는 매년 그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배로 증가하였다. 동남아에 거주하던 탈북자들의 단체유입(중앙일보, 2004년 7월 28일)과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에 거주하며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으로 유입하려고 하고 있어 탈북자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통일은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것으로 탈북자들을 통하여 통일을 대비한 민족의 사회통합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귀순용사가 한두 명이었을 때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긍휼의 대상이 되어서 사회적인 영웅으로까지 대접을 받고 정부로부터 풍족한 경제적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탈북자들의 수적인 증가로 인해 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도 부족하여 처음에 도착했던 탈북자들보다 교육기간도 짧다. 또한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받는 정착금이 있지만 이들의 자활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보호차원의 정책으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탈북자들이 효과적으로 자립하여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자립하여 한국사회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배려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탈북자들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탈북자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윤인진, 2000a; 한인영, 2001) 주로 사회적응과 문제점에 관한 종론적인 연구로 대부분이 서술적인 연구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인구학적인 특성, 탈북과정, 개인적 특성 등의 실태조사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여러 학자들의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의 특수성, 연구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탈북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응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지만(김학성, 2000; 오혜정, 1995; 윤여상, 2001; 이소래, 1997) 연구대상은 몇십 명 수준으로(이소래, 1997; 전우택·민성길, 1996)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의 연구가 어려웠으며 대부분이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근거하지 않은 당위론적인 것이었다(김명세, 1996). 또한 많은 경우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미간행물이어서(북한인권시민연합, 2000; 장혜경·김영란, 2000)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많은 탈북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혹은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찾아온 가치가 있는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한국사회의 문화 차이나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들이 동경했던 꿈을 이루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음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적응스트레스가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적응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그들의 극복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표적인 극복자원은 사회적 지지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겪는 어려움인 적응스트레스원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자원이 얼마나 되며,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적

응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자들의 성별, 교육, 연령 등의 인구 학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대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적응스트레스원인 직장의 유무와 복에 가족을 두고 온 것으로 인한 가족역할의 상실 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러한 적응스트레스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자원이 이들의 적응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한국생활에서의 적응스트레스원에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적응스트레스 원의 정도와 한국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적 응문제를 파악하여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돋는 것은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윤인진, 2000). 이와 같이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돋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에의 정착과 그들의 삶의 만족을 돋는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사회적 지지(구조적 사회적 지지와 기능적 사회적 지지)의 특성은 각각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겪는 적응스트레스원은 우울성향에 얼마나 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셋째 탈북자들의 사회적 지지 는 우울성향에 얼마나 부적인 영향을 주는가? 등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의 제한점은 이론의 부재다. 실질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연구에서 Berry의 적 응이론을 제외하고는 이론에 근거한 연구도 거의 없는 편으로, 탈북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윤여상 (2001)은 여러 적응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통합모델로 매슬로의 욕구충족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윤 인진(2000a)은 Berry의 모델에 근거한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Berry의 적응이론과 어 느 대상이나 적용이 가능한 Pearlin의 스트레스 모델을 이론적 틀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특히 탈북자들과 같이 다른 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스트레스의 영향 은 어떠하며 극복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스트레스 과정론적인 입장(Ataca and Berry, 2002; Pearlin, 1981)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기존의 서구 국가들의 이민자나 소수 민족들 이 주류사회에서 겪는 사회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의 설명으로는 Berry의 적응이론을 이 용하려고 한다.

Ataca와 Berry(2002)는 이주자들의 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둘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인 적응은 두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 고 서로 연관이 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사회상호작용이 활발한 경우에는 심리적으 로도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인진은 탈북자들의 적응을 물질 적(경제적) 적응과 정신적(심리적) 적응 둘로 나누고 있다. 물질적(경제적) 적응은 남한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의 획득”(2000a: 166)을 의미하며 정신적(심리적)

적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일 것이다. 윤인진(2000b)에 의하면 물질적, 심리적 적응에 모두 성공하여야만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탈북자의 경우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자는 부적응 즉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심리적 적응의 실패는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겪는 상실감 내지 죄책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적응의 실패는 한국사회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하여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 많은 경우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향을 등지고 대한민국으로 왔으므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직업유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소속감과 정체감을 갖는 것이 달라질 것이며 직업은 물질적 적응 뿐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적응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윤인진, 2000b: 15)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은 외적인 환경의 요구에 대응할 만한 내적인 자원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내적인 자원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던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환경변화에 대응할 내적자원으로 인하여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며 이에 대한 영향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우울성향 등이 나타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주민들의 스트레스는 크게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원인을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원으로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가족역할의 상실과,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경제적인 어려움 및 생활의 어려움을 동반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의 유무 즉 무직상태로 각각 구분하였다.

1)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

탈북자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꿈과 기대감으로 한국 땅을 찾아왔지만 곧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김성민, 2001). 초기의 하나원을 통한 적응교육과 정착금 등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다른 국가보다는 동질적이라 생각하였던 한국사회에도 반세기가 넘는 분단을 통한 이질적인 문화와 그들의 역할변화 등으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무직상태와 가족과의 이별은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기영, 1998; 전우택·민성길, 1996; Hyman, Vu and Beiser, 2000; Matsuka, 1993). 난민에 대한 스트레스의 종류를 크게 가족구성원의 상실과 이별에 대한 가족 스트레스, 직업에 관계된 스트레스, 언어의 장벽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Hirayama, Hirayama and Cetingok, 1993).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언어는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약 1년 정도 지나면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우택·민성길, 1996). 반면 탈북자가 인

식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취업문제와 가족문제로 각각 39.7%와 26.6%를 나타내고 있다(이금순외, 2003).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북한에서 수행하였던 역할은 상실하고 새로운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전환과정에서 역할긴장을 겪게되며 역할수행과정의 결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Aneshensel, 1992). 이들이 겪는 대표적인 역할전환은 역할상실로 북한에서의 지위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상실과 가족역할의 상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할이 변화될 때 역할의 재구성과정에서 개인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을 해야 한다(Pearlin, 1983). 이와 같이 역할변화는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역할변화는 개인의 사회적인 상황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역할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Pearlin et al.(1981)에 의하면 변화는 불균형을 가져오며 불균형은 재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한다. 그러므로 재구성과 재적응 과정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역할변화는 역할긴장을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재적응은 개인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된다. 특별히 외적인 역할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 개인들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Pearlin은 스트레스과정에서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역할상실과 역할변화로 인한 역할긴장 등을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보며 사회적인 자원인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극복자원으로 본다.

개인들이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상실은 공식적인 역할상실과 비공식적인 역할상실이 있는데 직업의 상실은 공식적 역할상실로, 가족역할의 상실은 비공식적 역할상실로 구분지을 수 있다. 역할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 개인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아정체성은 반대로 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준다. 역할이란 사회적 지위에 동반하는 기대되는 행동으로(George, 1993) 성, 나이, 지위 등이 사회적인 역할(Turner, 1990)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Pearlin, 1983). 사회적인 역할은 사회적인 구조를 구성하며 개인들이 사회의 실체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도록 해주므로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사회적인 상황과 분리할 수 없다(Goode, 1960; Rosow, 1985).

특별히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지위란 직장을 통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은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의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 자격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직장이나 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자신에 맞는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그들의 자격과 맞지 않는 직장이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직장으로 인하여 자아상실감을 느끼기도 하며 안정된 직장이 없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들의 꿈과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4분의 1을 넘는 수의 탈북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5분의 1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이우영, 1997). 이와 같이 많은 탈북자들이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낀다고

한다(김성민, 2001).

스트레스는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만성적 삶의 스트레스는 계속되는 평가로 인해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위의 불일치(Aneshensel, 1992)가 있다. 적절한 수입은 개인이 다른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 탈북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탈북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탈북에 대한 회의를 주기도 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사회적 지지나 사회참여 등 사회적인 자원의 부족을 가져오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와 비슷한 지위에서 직장을 잡거나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취업을 배려하였지만 지금은 그 배려도 사라졌다.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축소로 1994년에서 1998년 사이 탈북자들이 실업이나 빈곤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였으며(윤인진, 2001) 약 50%정도가 직장을 얻지 못하여 무직상태에 있다(김성민, 2001). 직장이 없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생활보다 경제적으로(절대적인 빈곤의 개념에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한국사회의 풍요로운 물질에 비해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때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된다. 직장의 유무는 자아정체성 뿐 아니라 경제적 상태를 결정하고 경제는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Pearlin and Johnson, 1977)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탈북자들의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될 것이다. 탈북자들이 겪는 사회적응의 어려움도 경제적 적응이라고 한다(윤인진, 2001).

반면에 비공식적인 역할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역할은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가 없다(Rosow, 1985). 그러나 공식적, 비공식적인 역할에 상관없이 역할변화가 적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Wheaton, 1990). 이민자들은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Matsouka and Ryujin, 1989-1990). 탈북자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이기영, 1998; 이장호, 1997). 그들의 탈북으로 인하여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가족역할은 상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역할을 상실한 탈북자들은 비공식적인 역할상실로 비공식적인 역할수행이 힘들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지지 부재로 인하여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Matsuoka, 1993). 특히 한국에 친인척이 없을 경우 이러한 외로움이나 고독감은 더욱 채워지기가 힘들 것이다.

역할의 전환성은 상실된 역할을 다시 비슷한 역할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고 역할의 보상성은 새로운 역할이 상실한 역할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된 역할은 상실한 역할과는 다른 것이다. 탈북자들의 역할변화 중 가족역할의 상실은 전환되거나 보상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특히 북한에 부모를 두고 온 경우나 자녀를 두고 온 경우에 자녀나 부모의 역할은 전환될 수 없다.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일 경우에 재혼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상된 역할은 그들의 상실한 역할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역할의 상실은 탈북자들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며 가족역할의 상실은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때로는 고독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가족역할의 상실은 가족이 전부 탈북하지 않는 한 대처될 수 없고 전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탈북으로 인해 가족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난민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족과 같이 오지 못한 죄책감이며

(Matsuoka and Ryujin, 1989-1990) 많은 연구가 가족역할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김동배, 1996; 박미석 · 정승원, 1999; 전우택 · 민성길, 1996).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자가 가장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accelturation stress)를 나타내고 있다(이소래a, 1997).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적응에 악영향을 미친다(이금순외, 1997). 그러므로 가족역할의 상실은 탈북자들이 겪는 심리적 적응스트레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온 탈북자가 단신으로 온 탈북자보다 높은 우울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족이주가 주는 부담과 자원상의 문제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한인영, 2001), 이 연구의 대상은 정착지원시설에서 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로 그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은 아직 전무한 것으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나가는데 친지, 친구의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 등은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라도 다른 사회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재정 상태나 자원, 지위 등에 따라 개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탈북자라도 직업의 상실이나 가족역할의 상실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의 반응은 친척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한국사회에서 단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사회적 지지자원이 풍부하며 직접적인 자원을 받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및 효과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Cohen and Syme, 1985: 4)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전환기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Barrera, 1986), 정신적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Thoits, 1982).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대상이든지 사회복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으로, 탈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애정이다(김성민, 2001).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탈북자들에게 여러 방면의 사회적 지지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조적 사회적 지지와 기능적 사회적 지지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구조적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 애정이나 호의, 관심, 확신, 도움 등과 같은 개인 상호작용의 실질적인 거래(Kahn and Antonucci, 1981) 등을 포함한다. 구조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로 우정, 가족의 결속 및 자녀, 형제, 자매, 친구 등에 의한 사회적 지지망도 포함하며, 이러한 관계의 성격 즉 다양성, 크기, 빈도, 밀도(Cohen and Syme, 1985) 등을 말한다. 또한 구조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통합,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망의 자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의 소속감(sense of belonging), 사회적 지지망과의 유감대(sense of bonding)과 결속력(sense of binding) 등이다(Lin, Ye and Ensel, 1999).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서 연대감, 소속감, 애착감을 느끼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 뿐 아니라 감정적인 소속감도 중요하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크게 도구적, 정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Cohen and Syme, 1985; Helgeson, 1993; Lin, 1986). 도구적 지지는 교통편을 제공하든지, 심부름을 해 주던지,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 등과 같이 실질적인 원조를 하는 것이며 정서적 지지는 개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감

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친밀감, 밀착, 동정, 관심 혹은 배려 등을 포함한다 (Cohen and Wills, 1985; Helegeson, 1993).

탈북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이소래, 1997a, 1997b). 특히 구조적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이소래의 연구는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지지제공자의 크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지로 기능적 지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지제공자의 크기는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여상(2001)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개념정의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가족으로 29.3%이며 정부나 사회단체의 사람이 22.2%, 탈북자 19.4%, 이웃주민 13.9% 직장동료, 8.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종철·김영운·이우영, 1996).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본다. 탈북자들이 자조집단 등의 동아리를 형성하여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 사회적 지지가 되겠다. 또한 한국에 일가친척이 있던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던지, 같은 탈북자 친구가 있는 것 등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 그 자체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도 하고 관심과 도움을 받으며 삶에 만족감 및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또한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친척,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정서적 도움을 받던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 도구적 도움을 받는 것 등이다. 탈북자들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도움 외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조집단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한다. 탈북자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한 박미석과 정승원(1999)의 연구에 의하면 친척이나 친구로부터의 심리적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인 적응을 끌어낸다고 설명하고 있어 기능적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상당히 제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대한민국에서 친구를 갖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없고 고립감을 느낀다고 한다(윤인진, 2001). 또한 한국 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편견, 또 그들의 신분의 특성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한국친구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전우택·민성길, 1996). 가족이나 친척, 같은 탈북자를 빼고 그들이 새로 대한민국에서 사귄 사람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원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특히 고향을 떠나 타자로 와서 적응하며 살아야하는 탈북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심리적 적응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Ataca and Berry, 2002).

앞의 구조적 기능적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듯이 사회적 지지는 실질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는 관계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존재하는 그 자체로써도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 일가친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지체계는 다르게 구성되며 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한 즉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관계를 통한 비공식적인 역할을 통하여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을 말한다(Cohen and Syme, 1985). 사회적 지지가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망의 현존은 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으

며 마지막 단계는 개인이 사회적 지지망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관계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Pearlin, Lieberman, Menaghan and Mullan, 1981).

사회적 지지체계로는 친척, 친구, 이웃 등이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각각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에서 온다. 특정한 상황이 특별한 기능의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회적 지지망의 구체적인 기능은 특별한 효과가 있으며 각각의 지지망은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정서적, 도구적 지지는 개인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고 효과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의 적응스트레스인 무직상태, 가족역할의 상실 등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도구적 지지나 정서적 지지 등이 그들의 스트레스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개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삶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거나 혹은 사회적 지지망에의 소속감에 기인한다(Cohen and Syme, 1985). 사회적 지지를 갖고 있는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보다 높은 복지를 보이는데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인지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Cohen and Syme, 1985; George, 1989).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은 개인들이 특정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가 개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Cohen and Syme, 1985). 탈북자와 같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사회에의 삶의 변화와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건강을 통하여 적응의 정도를 알 수 있다(Holmes and Rahe, 1967). 이주자들의 적응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울성향이 많이 사용되며(Alderete, Vega, Kolody and Aguilar-Gaxiola, 1999; Oh, Koeske and Sales, 2002) 난민들의 정서적 복지는 곧 그들의 정신건강을 의미한다(Matsuoka, 1993). 이주민이나 탈북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도 임상적 우울증 증상과 불안을 들고 있다(전우택, 1997; Berry, 1997; Berry, Poortigna and Pandey, 1997). 전우택(1997)의 1994년 이후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한에서의 적응의 정도는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81%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2%가 뚜렷한 정신건강상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약 10%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숫자는 다른 연구보다는 낮으나 탈북자는 특수집단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탈북자 전체의 문제로 비춰져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탈북으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 심리적인 불안 등을 나타낸다(윤여상, 2001).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사회에 편입되기 전인 탈북자들의 약30%가 임상적 우울증상군에 해당된다고 한다(한인영, 2001). 또한 단독입국여성들의 경우 53.8%의 높은 비율을, 가족과 함께 입국한 여성의 경우 33.3%가 임상적 우울증군에 해당한다(한인영, 이소래, 2002). 탈북자들이 이와 같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문화적응으로 인한 죄책감(이소래, 1997a), 미래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적응의 어려움(이기영, 1999; 이장호, 1997; 전우택 · 민성길, 1996) 등 때문이라고 한다. 윤인진(1999)은 탈북자들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가 적응에 따른 결과로 우울성향을 측정하므로(Ataca and Berry, 2002; Oh, Koeske and Sales, 2002) 우울성향의 정도는 탈북자들이 적응스트레스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탈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상황적 특성

탈북자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교육수준, 나이, 성별,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교육 등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황변수로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은 이들 변수에 따라 서로 달라질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탈북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탈북자의 연령, 성별 등으로 개인의 배경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탈북자라도 그들의 자원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적응의 수준은 다를 것이다. 탈북자들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탈북 이전의 요소, 탈북 이후의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계층이 한국사회의 적응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윤인진, 2000b) 북한사회의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탈북 이전의 요소는 교육수준이다(Gibson, 2002). 또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는 그들의 나이 즉 빌달단계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Matsuoka, 1989-1990). 그러므로 탈북자들의 나이는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탈북 이후의 요소는 제3국에의 노출로(Gibson, 2002)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은 한국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윤인진, 2000a). 오랫동안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온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지의 제3국에서의 자본주의 경험이 한국사회에 대한 사전적응으로 한국에서의 적응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거주기간은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며(한인영, 2001) 거주기간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Ataca and Berry, 2002) 입국년도에 따른 적응수준 또한 다를 것이다. 입국년도를 통하여 국내 거주기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영향도 다르다. 그러나 탈북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1980년을 전후한 것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1990년대에 입국한 자들로 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그들의 적응수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요한 탈북 이후의 요소로는 한국에서의 교육으로 교육은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은 윤인진(2000b)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지식에 기반한 직장 뿐 아니라 학우나 동문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로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며, 교육을 통한 적응력도 증진시키게 된다. 또한 교육은 직장의 획득과도 직접 연관이 있고 경제적인 안정과도 직결되므로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자료는 탈북자동지회, 백두한라회 및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 등 여러 탈북자 단체의 구성원들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의 성격상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중 편의적인 표본조사에 의하여 가능한 사람들에게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방법은 가기기입식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는 171개의 설문지가 사용되었고 청소년을 제외한 164개의 설문지중 회귀분석을 위하여는 연구변인에 모두 응답한 157개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구조적 사회적 지지와 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비교하는데 두 집단일 경우 t-test를 사용하였고 셋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인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종속변인인 우울성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인 무직상태와 가족역할상실의 각각의 우울성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수와 새로운 사회에서 사귄 친구와 탈북자 친구와의 접촉빈도 및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유무 등 사회적 지지의 우울성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등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의 기능적 사회적 지지의 영향도 조사를 하였다. 이때에 인구학적인 변인인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교육연한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고 탈북자의 상황변수인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 한국에서의 정규교육의 유무와 거주기간 등도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1) 독립변인

무직상태는 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직장이 없는 경우 “1”, 직장이 있는 경우를 “0”으로 채점하였다. 가족역할상실의 측정으로는 아래의 네 문항이 사용되었다.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에 형제/자매를 두고 나왔다. 2) 북한에 부모님을 두고 나왔다. 3) 북한에 자녀를 두고 나왔다. 4)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나왔다. 형제/자매를 두고 온 것은 형제/자매의 역할상실, 부모님을 두고 온 것은 자녀의 역할상실, 자녀를 두고 온 것은 부모의 역할상실, 배우자를 두고 온 것은 배우자의 역할상실로 가족역할의 상실은 각 역할상실을 1점으로 한 것을 합한 것으로 역할상실의 범위는 0점에서 4점이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측정으로는 사회적 지지망의 존재의 파악으로 한국에 친척이 몇 명 있는가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지지망과의 접촉으로는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와 탈북자 친구와의 접촉으로 각

각 만난 횟수나 전화통화를 한 번도로 측정하였다. 접촉의 빈도는 1. 일주일에 한번 2. 한 달에 한번 3. 두 달에 한번 4. 6개월에 한번 5. 1년에 1번으로 자주 접촉하는 것을 높은 점수로 역 채점하였다. 총점은 각각 2점에서 10점의 범주다. 사회단체 구성원의 측정은 단체구성원의 유무를 조사한 것으로 탈북자 자조집단에의 참여여부, 종교단체에의 참여여부,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의 참여여부로 각각 “예”는 “1”, “아니요”는 “0”으로, 0점에서 3점의 범주다.

사회적 지지의 실질적인 기능의 측정으로는 다방면의 사회적 지지(Multidimensional Social Support)의 세 영역 중 절친한 사람으로부터의 지지(Winefeld, Winefeld and Tiggemann, 199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86으로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로는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 측정도구에는 사회적 지지의 적절성(adequacy)과 가용성(availability)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두세 명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얼마나 자주 당신의 관심이나 문제를 진심으로 “듣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와 “당신의 문제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거나 당신문제 외의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까”,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을 조언해 줍니까?”의 다섯 문항이다. 도구적 지지는 한 문항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대신해 준다든지 돈을 빌려주는 것 등으로 당신을 돋습니다.”다. 각 문항은 ”1“은 ”결코 아니다“에서 ”4“는 ”대부분/항상“으로 리커트척도 4점 범주로 정서적 지지의 총점은 5점에서 20점, 도구적 지지는 1점에서 4점 범주다.

(2) 종속변인

적응의 정도는 주로 우울성향을 측정하므로(Ataca and Berry, 2002; Oh, Koeske, Sales, 2002) 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울증 증상을 사용하였다. 우울성향의 척도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Radloff, 1977)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1이다. 문항의 내용은 “보통 내가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않던 일이 성가시럽게 느껴진다”, “별로 먹고싶지 않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느낀다”, “나의 삶이 실패라고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등의 총 20문항으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0”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3”은 “대부분/항상”으로 점수의 범주는 0에서 60점이다.

(3) 통제변인

인구학적인 변인 중 나이는 공식적인 나이인 만 나이를 측정하였고,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채점하였다. 북한에서의 교육기간은 고등중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학교(전문대학) 4학년까지 중 최종학력을 표시하여 그 숫자를 더하였다. 탈북 이후의 변인으로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기 전 중간경유지에서의 체재기간을 개월로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정규교육을 받았는가의 유무의 측정으로 “예”는 “1”로, “아니요”는 “0”으로 코딩하였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하나원 교육 이후부터 설문조사를 끝낸 2003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거주한 개월로 환산하였다.

4. 연구 결과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들의 특성(n=164)

변 인	구 分	빈도%(n)	평균(표준편차)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	51.83(85)	
	여	48.17(79)	
	연령 초기성인기(22-33)	37.80(62)	38.34(11.22)
	중장년기(34-59)	57.32(94)	27.53(3.56)
	노년기(60+)	4.88(8)	43.17(6.87)
	교육 고등중학교	79.88(131)	65.25(4.33)
	전문대이상	20.12(33)	6.69(0.29)
	고등중학교	5.96(0.29)	5.96(0.29)
	전문대이상	9.55(0.67)	9.55(0.67)
	중간경유지 체재기간		12.23(11.96)
탈북 이후특성	한국거주기간 12개월	3.66(6)	44.18(20.00)
	12-36개월	33.54(61)	8.83(3.65)
	36-60개월	41.46(68)	27.09(6.06)
	60개월 이상	21.34(35)	44.63(5.57)
	재교육 유	20.12	76.23(6.81)
	무	79.88	
	실직상태 유	50.61	
	무	49.39	
	가족역할상실		1.21(1.35)
	친척의 존재 없음	54.27(89)	5.02(7.18)
구조적 사회적 지지	1-10명	28.67(47)	
	11-20명	14.64(24)	
	21-30명	2.44(4)	
	친구 접촉빈도 탈북자 친구 접촉빈도		2.73(1.39)
	집단참여		2.47(1.24)
기능적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59(0.85)
	도구적 지지		
우울성향	우울성향(n=162) 6-25	61.11(99)	15.46(3.37)
	25이상	38.89(63)	2.72(1.05)
			23.07(6.55)

<표 1>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인구비는 남녀가 약 50% 정도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의 평균은 38.34세로 표준편차 11.22를 감안한다면 27세에서 50세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비율을 감안한다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초기성인기와 중장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기간은 북한이 고등중학교까지(6년) 의무교육임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 학력별로 구분한 비율을 보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전체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0%정도가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탈북 이후의 특성 중 중간경유지의 체재기간을 보면 12.23개월로 보통 1년 정도는 제3국에서 체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커다란 표준편차가 말해주듯이 보통 체류기간이 0에서 2년 정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44개월로 3년 반 정도지만 표준편차가 20개월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한국거주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으로 전체의 3/4인 74%정도가 2년에서 5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5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들은 전체의 20%정도다. 한국사회에서의 재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20.12%로 전체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자의 적응스트레스원을 보면 50%가 조금 넘는 탈북자들이 직장이 없으며 가족역할상실의 평균수치는 1.21로 한명 정도다. 표준편차를 감안한다면 많아야 두세 명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사회적 지지망의 현존으로는 친척이 평균 다섯 명 정도 대한민국에 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 55%정도의 탈북자가 한국에 친척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1명에서 10명 정도가 약 30%, 11명에서 20명 정도가 약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와의 접촉은 약 3점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두 번 정도의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 친구와의 접촉도 약 2.5점으로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의 접촉보다 조금 적은 빈도다. 표준편차를 보면 많아야 6개월에 한번정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자조집단,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의 참여는 평균 1.59점으로 한 개 이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전체 20점 범주 중 15.56으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로부터 자주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구적 지지 역시 전체 4점 중 2.72로 자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울성향은 전체 60점 중 임상적 우울군에 해당하는 25점 이상이 38.89%로 전체의 5분의 2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표 2>는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구조적 사회적 지지와 기능적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탈북자들의 성별에 따른 구조적,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집단참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3.58$, $p<.001$).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보면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탈북자친구와의 접촉빈도만 나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F=4.55$, $p<.05$)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F=11.66$, $p<.001$)와 도구적 지지($F=10.24$, $p<.001$) 모두 나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의 정도에 따른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무교육인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차이는 정서적 지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t=2.84$, $p<.01$) 정서적 지지는 북한에서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정규교육의 유무에 따른 구조적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기능적 사회적 지지

는 정서적 지지($t=2.14$, $p<.05$), 도구적 지지($t=2.26$, $p<.05$)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에서 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변인		N	구조적 사회적 지지			기능적 사회적 지지	
전체		164	친척존재	친구접촉	탈북친구접촉	집단참여	정서적
성별	남	85	4.212(6.450)	2.741(1.399)	2.432(1.070)	1.377(0.801)	15.141(3.553)
	여	79	5.886(7.833)	2.722(1.386)	2.544(1.412)	1.835(0.839)	15.823(3.137)
연령	초기성인	62	5.339(7.149)	2.597(1.299)	2.129(0.896)	1.661(0.767)	17.000(2.997)
	중장년	94	4.840(7.147)	2.851(1.451)	2.638(1.367)	1.511(0.913)	14.553(3.278)
재교육	노인	8	4.625(8.585)	2.375(1.302)	3.125(1.356)	2.125(0.354)	14.375(3.068)
			F= 0.10	F= 0.90	F= 4.55*	F= 2.25	F= 11.66***
북교육	고등중졸	131	5.122(7.393)	2.809(1.337)	2.420(1.109)	1.588(0.829)	15.916(2.967)
	전문대졸 이상	33	4.606(6.329)	2.424(1.562)	2.667(1.652)	1.636(0.822)	13.679(4.232)
재교육			t= 0.37	t= 1.41	t= -0.81	t= -0.29	t= 2.84**
	유무	33	6.606(8.584)	2.424(1.437)	2.394(1.731)	1.727(0.719)	16.576(3.881)
		131	4.618(6.756)	2.809(1.371)	2.489(1.084)	1.565(0.878)	15.191(3.180)
			t= 1.43	t= -1.43	t= -0.39	t= 0.98	t= 2.14*
t= -1.50 t= -0.09 t= -0.74 t= -3.58*** t= -1.30 t= -0.54							

p*<.05; p**<.01; p***<.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3>은 탈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모델로 모델 1에 의하면 인구학적인 변인인 연령, 성별, 북한에서의 교육은 우울성향의 변량을 25.41% 설명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성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0.22$, $p<.001$).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는 없으며 북한에서의 교육연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탈북 이후의 변인 중 중간경유지에서의 체재기간은 우울성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b=-0.13$, $p<.05$). 한국에서의 거주기간도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울성향을 감소시키고 있다($b=-0.05$, $p<.05$). 또한 한국에서 정규교육의 재교육기회가 있는 것이 우울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재교육의 기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탈북자들의 우울성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b=-1.60$, $p<.05$).

모델 2는 모델 1에 적응스트레스를 추가한 것으로 무직상태와 가족역할의 상실은 우울성향을 2.61% 더 설명하고 있지만 F 점증테스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적응스트레스 중 무직상태는 우울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직장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우울성향에의 영향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b=2.19$, $p<.05$). 반면에 가족역할의 상실은 우울성향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모델 3은 모델 2에 구조적 사회적 지지 변인들을 넣은 것으로 구조적 사회적 지지 변인들은 우울성향의 변량을 273% 더 설명하고 있다.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한국사회에 친척의 존재, 새로 사귄 한국 친구의 접촉빈도는 우울성향에 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 친구와의 접촉빈도와 집단에의 참여는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집단참여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b=-1.01$, $p<.05$).

<표 3> 탈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모델 (n=157)

변 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b (s.e)		b (s.e)		b (s.e)	
인구학적 특성								
연령	0.22***	(0.05)	0.18***	(0.05)	0.19***	(0.05)	0.16**	(0.05)
성별	-1.16	(0.92)	-0.55	(0.95)	-0.94	(1.01)	-1.27	(0.97)
북교육	-0.40	(0.32)	-0.35	(0.31)	-0.31	(0.31)	-0.61*	(0.31)
탈북이후 특성								
체재기간	-0.13**	(0.05)	-0.13**	(0.05)	-0.12**	(0.05)	-0.13**	(0.04)
거주기간	-0.05*	(0.03)	-0.04	(0.03)	-0.04	(0.03)	-0.04	(0.03)
재교육	-1.60*	(0.69)	-2.09**	(0.74)	-1.85**	(0.75)	-1.78**	(0.71)
적응스트레스								
무직상태			2.19*	(1.03)	2.19*	(1.03)	2.12*	(0.99)
가족상실			0.45	(0.35)	0.54	(0.40)	0.79*	(0.38)
구조적 사회적 지지								
친척존재					0.08	(0.07)	0.10	(0.07)
친구접촉					0.25	(0.36)	0.80*	(0.38)
탈북친구접촉					-0.28	(0.42)	-0.26	(0.41)
집단참여					-1.01*	(0.60)	-0.58	(0.59)
기능적 사회적 지지								
정서적							-0.75***	(0.19)
도구적							1.49*	(0.66)
F test	F(6,150)=8.39***		F(8,148)=7.20***		F(12,144)=5.33***		F(14,142)=6.07***	
R square	0.2541		0.2802		0.3075		0.3743	
F 점증테스트			F(2,148)=2.96		F(4,144)=1.42		F(2,142)=7.58***	

*p<.05; **p<.01; *p<.001

모델 4는 기능적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모델 3에 첨부했을 때 우울성향의 변량을 6.68% 더 설명하고 있다. 정서적 지지는 우울성향을 감소시키고 있지만($b=-0.75$, $p<.001$) 도구적 지지는 우울성향을 증가시키고 있다($b=1.43$, $p<.05$).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보면 우선 성별에 따라 집단에의 참여를 제외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집단참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종교성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종교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도 종교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서 노인들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탈북자친구와의 접촉을 많이 하고 있어 일반 노인과 마찬가지로 탈북노인들도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초기성인기의 연령층이 정서적, 도구적인 지지를 모두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능적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것은 젊은층이 많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하여 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 지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원의 차이를 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정서적 지지가 전문대를 졸업한 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일반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가 더 많고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McLeod and Kessler, 1990), 탈북자의 경우 고등중졸자들이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들보다 친척도 많고, 친구와의 접촉도 많으며 집단에의 참여가 조금 높은 것으로 미루어 이들의 넓은 사회적 지지체계와 기능적 지지의 수혜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탈북자들이 친척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탈북자의 한국에서의 재교육을 독려하고 재교육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델 1의 경우 인구학적인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연령으로, 연령은 우울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자체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earlin and Mullan, 1992). 또한 연령이 많은 이주자집단과 젊은 이주자집단의 비교에서도 연령이 많은 집단이 자신들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나 속수무책 등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tsuoka, 1993). 본 연구결과에서 연령의 우울성향에의 정적인 영향은 탈북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나이가 많을수록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탈북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은 우울성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반해 한국사회에서의 정규교육은 우울성향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교육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화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넓히고, 직장의 획득, 지지망의 획득, 다양한 정보의 활용 등 중요한 극복자원이 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때 기대한 것은 교육의 기회가 8.7%,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학교교육이 10.8%와 자녀교육이 12.9%로 교육의 필요성이 23.7%로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표1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사회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0.12%로 그들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교육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한국에 올 때의 기대치 보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에 대한 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그들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재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

<표 3>의 모델 2에서 보여주듯이 무직상태는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많

은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탈북하였는데 한국에서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의 약 50%가 무직상태라고 하는데(김성민, 2001) 본 연구의 결과 표1에서도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가족역할의 상실은 우울성향에 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울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 표1에 의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들을 포함해서 북에 두고 온 가족은 한명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이 가족역할의 상실로 인한 어려움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델 1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델 2에 적응스트레스 변인이 첨부되었을 때 거주기간은 더 이상 우울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직상태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사회에 오래 거주했다는 것 만으로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사회적지지 중 몇 가지 종류는 우울성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델 3의 경우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집단에의 참여는 우울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나 사회단체는 한국사회에의 소속감을 주는 역할을 하며 탈북자단체의 참여는 자조집단의 역할을 하므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친척의 존재는 우울성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의 반가웠던 또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탈북자들이 한국 땅에 거주하여 적응하며 생활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여 생긴 결과 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는 가용성과 실용성(actual use)을 구별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망이 있을지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없을 때 친척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들의 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친구와의 접촉에서도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는 우울성향에 정적으로, 탈북자 친구는 부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무직상태나 가족역할의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 친구들과의 만남이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4의 경우 기능적인 사회적 지지는 탈북자의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탈북자들이 적응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한국사회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이나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로 도구적 지지는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탈북자들이 무직상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단순한 돈을 빌려주던가 일을 대신해 주는 것 등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많은 경우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때로는 본 연구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도우려는 사람의 의도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의 상황이나 도움의 정도나 제공자의 태도나 받는 사람의 도움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재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도구적 지지가 평균보다 높으며 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단순히 실질적인 문제를 대신해 준다든지 돈을 빌려주는 것 등의 도구적 지지로 인하여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위해서는 적절성 즉 사회적 지지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받는 자가 원하지 않고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Pearlin and McCall, 1990)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역효과가 나타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때도 많은 주의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대상에의 접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50명이 넘는 설문조사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통계적인 추론을 통한 연구이지만 편의적인 표본조사에 의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탈북자의 특성상 구조적인 지지의 측정에서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보다는 그들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종류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측하였던 것과는 달리 도구적 지지는 역방향으로 탈북자들의 적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탈북자들의 필요에 적절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적 지지의 측정도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써 우울성향이 이들의 탈북하는 과정의 어려움에서 생긴 것인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겼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국 후에 바로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 등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그들의 적응상태를 파악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단순한 직업의 유무로 인한 무직상태 뿐 아니라 그들이 직업을 못 갖고 있는 이유 등을 파악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의 제시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면 연구결과가 설명하듯이 단순히 한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에서의 정규교육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원에서의 적응교육 외에 학교교육 등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자활하여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북한에서의 자격은 한국에서의 단기간의 재교육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직장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무직상태가 적응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탈북자들의 직장은 그들의 한국사회의 적응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사회화과정은 한국국민들과 달라서 그들이 자본주의사회의 경쟁체제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영업 등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므로 탈북자들의 자영업의 육성과 활성화 및 이를 자영업의 판로개척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직업을 창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에서도 탈북자들의 직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2004년 12월 7일)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취업보호제도 보다는 할당제 등의 좀더 적극적인 취업정책이 필요하겠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통일부)에 따르면 직업훈련이 탈북자들 스스로가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정해진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직업에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직업훈련 후에 모두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서의 구직의 어려움을 차별, 북한에서의 자격을 인정 해주지 않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어서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에서 정착하여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친구들을 사귀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므로 동등하게 친구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시민단체나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에 탈북자들을 돋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한국국민들과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민간단체들과의 좀더 활발한 사회적인 지지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구조적 사회적 지지 중 집단참여가 탈북자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바탕으로 접촉의 빈도 등 실질적인 참여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한국사회에의 소속감을 갖고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및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탈북자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요청된다. 탈북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그들을 담당하는 형사들이며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한국에서의 정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박미석·정승원, 1999; 전우택·민성길, 1996)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여야 할 많은 역할을 형사들이 담당하고 있어, 초기과정부터 전문가들의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40% 정도가 임상적 우울군에 포함되는 높은 우울성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가 혹은 정신보건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탈북자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제거하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들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북자를 중에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이 보여주고 많은 탈북동포들이 제시하듯이 우리들이 그들의 향하여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는 것이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그들이 겪는 적응스트레스의 극복에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단순한 사회적 지지망의 존재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배려를 줄 수 있는 가족, 친구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구적 지지가 오히려 그들의 우울성향을 증가시킨 것을 통하여 단순히 일을 대신해 준다든지 돈을 빌려주는 것 등으로는 그들의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근본적인 직장의 해결,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결 등이 필요하여 또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는 교육지원이 있으나 연령제한과 기간의 제한이 있다. 특히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만학도에 대한 특례입학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탈북자들의 교육지원에 연령의 제한은 폐지되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지원은 공납금 지원과 학자금 지원(통일부) 등의 지원이 있지만 탈북자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기간동안 다른 학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탈북자들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찾고 활용하여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의 생존경쟁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자조집단 뿐 아니라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좀더 적극적으로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지지망을 넓혀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서 연대감, 소속감, 애착감을 느끼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 뿐 아니라 감정적인 소속감도 중요하므로 탈북자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소속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사회도 이들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사회통

함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므로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세. 1996.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이영선·전우택 편,『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 서울: 도서출판 오름. pp. 92-105.
- 김성민. 2001. “‘탈북자’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당대비평』16: 274-286.
- 북한인권시민연합. 2000.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 미간행 연구계획서.
- 박미석·정승원. 1999. “탈북 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성곡논총』30: 595-713.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학성. 2000.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정. 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상. 2001.『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도서출판 세명.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적응실패와 정책지원의 새로운 접근”.『한국사회학』33: 511-549.
- 윤인진. 2000a.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3(2): 123-184.
- 윤인진. 2000b.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색”, 제39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 윤인진. 2001. “탈북자는 2등 국민인가?”『당대비평』16: 222-255.
- 이금순. 1997.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대책 및 그 문제점”,『통일』6: 68-77.
- 이금순외. 2003.『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통일연구원.
- 이기영. 1998.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정신보건과 사회사업』8: 161-176.
- 이기영. 2000. “국내탈북자 적응 및 정착의 지원방안”,『제39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 이소래. 1997a.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청소년상담연구』5(1): 149-161.
- 이소래. 1997b.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전우택 편. 1996.『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이우영. 1997. “Northern Defectors in South Korea”.『신동아』5월호.
- 이우영외 2000.『북한이탈주민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이장호. 1997. “북한출신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성곡논총』28(4): 739-789.
- 장혜경·김영란. 2000. “탈북자 가족의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미간행 연구보고서.
-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대한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통일연구』1(2):

- 109-167.
- 전우택·민성길. 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 서울: 도서출판 오름. pp. 16-60.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 제성호,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3: 221-247.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94.
- 한인영, 이소래. 2001.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 10: 121-142.
- “탈북자 집단입국시대”. 중앙일보, 2004년 7월 28일.
- “탈북자 정착지원금 줄인다”, 중앙일보, 2004년 12월 7일.
- 통일부 www.mis.go.kr,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Alderete, E., W. A. Vega, B. Kolody and Aguilar-Gaxiola. 1999. "Depressive symptomatology: Prevalence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among Mexican migrant farm workers in Californi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4): 457-471.
- Aneshensel, C. S. 1992.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5-38.
- Ataca, B., and J. W. Berry,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Y. H. Poortinga and Pandey(Eds.),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pp. 291-326. i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 Boston: Allyn and Bacon.
- Cohen, S. and S. L. Syme.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pp.3-22. in *Social support and health*, edited by Sheldon Cohen and S. Leonard Syme. Orlando, FL: Academic Press.
- George, L. 1989.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ver the life-course". pp. 241-267. in *Aging, stress and health*. edited by Kyriakos S. Markides and Cary L. Coop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George, L. K. 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 transitions". *Annual Review Sociology* 19: 353-73.
- Gibson, M. A. 2002.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19-23.
- Goode, W. J. 1960. "A theory of role strai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1): 483-496.
- Helgeson, V. S. 1993. "Two important distinctions in social support: Kind of support and perceived versus receiv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10): 825-845.

- Hirayama, K., H. C. Hirayama. 1993. "Mental health promotion for Southeast Asian Refugees in the U.S.A". *International Social Work* 36: 119-129.
- Holmes, T. H., and R. H. Rahe.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Hyman, I., N. Vu and M. Beiser. 2000. "Post-migration stres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 youth in Canada: A research not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1(2): 281-293.
- Kahn, R. L. and T. C. Antonucci. 1981. "Convoys of social support: A life-course approach". pp.383-405. in *Aging: Social change*. edited by Sara B. Kiesler, James N. Morgan and Valerie Kincade Oppenheimer. New York: Academic Press.
- Lin, Nan. 1986. "Model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p. 173-209. in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edited by Nan Lin, Alfred Dean and Walter M. Ensel. Orlando, FL: Academic Press, Inc.
- Lin, N., X. Ye and W. M. Ensel.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44-359.
- Matsuoka, Jon. 199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in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adjustment of Vietnamese Refuge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7(3/4): 1-21.
- Matsuoka, Jon K., D. J. Ryujin. 1989-1990. "Vietnamese refugees: An analysis of contemporary adjustment issues". *The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4 (1): 23-45.
- McLeod, J. D. and R. C. Kessler, R. C. 1990.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62-172.
- Oh, Y., G. F. Koeske and E. Sales.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 Pearlin, Leonard I. 1983. "Role strains and personal stress". pp. 3-32. in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Howard B. Kapla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Pearlin, L. I. 1985. "Social structure and processes of social support". pp.43-60. In *Social support and health*. edited by Sheldon Cohen and S. Leonard Syme. Orlando, FL: Academic Press, Inc.
- Pearlin, L. I. and J. S. Johnson. 1977. "Marital status, life-strai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704-715.
- Pearlin, L. I., M. A. Lieberman, E. G. Menaghan and J. T. Mullan.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earlin, L. I. and M. McCall. 1990. "Occupational stress and marital support: A description of microprocesses". pp. 39-60. in *Stress between work and family*. edited by John Eckenrode and Susan Gore. New York: Plenum.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ow, I. 1985.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 cycle". pp. 62-93.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ited by R. H. Binstock and E. Shanas. New York: Ban Nostrand Reinhold Co.
- Thoits, P. A.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epidemi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41-362.
- Turner, R. J. 1983. "Direct, in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associated conditions". pp.105-155. In *Psychologic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Howard B. Kapla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Turner, R. H. 1990. "Role change". *Annual Review Sociology* 16: 87-110.
- Winefield, H. K., Winefield, A. H. and Tiggemann, M. 1992.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s: The Multidimensional support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 198-210.
- Wheaton, B. 1990. "Life transitions, role histories, and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09-223.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Kim, Mee-Ryoung
(Daegu University)

Due to the increasing concerns with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es have been increased.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areas, the researches about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rare.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164, which makes it possible to do statistical inferences. As statistical methods,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are use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ve symptom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 are controlled. The context factors-the period of the stay in the third place, the period of residence and the existence of the education in Korea-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women is higher than that of men. Also, there are differences of the functional social support by the age group. The research result indicates the education of South Korea is an important factor to reduce the depressive symptoms. The research result also shows that the jobless is an important stressor. Among structural social support, the member of religious or social group is an important factor for reduc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functional social support, the emotional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factor of adaptation, but the effect of instrumental social support is the opposite. Therefore, the adequacy of social support in a specific situation must be considered.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adjustment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ve symptoms

[접수일 2004. 12. 10. 개재확정일 2005. 1. 29.]